

원유가격 인상... '밀크플레이션' 현실이 됐다

지난달 우유 물가 14.3% 상승...금융위기 이후 '최고' 발효유 14.7% '18년내 최고' ...아이스크림 15.2% ↑ 빵·과자류 물가 연쇄 압박...소비자단체 '가격 내려야'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돼왔던 '밀크플레이션' (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유를 원료로 한 분유와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다. 우유·분유값 상승은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과자류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2.0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8%)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또 발효유 물가 상승률이 14.7%로 2005년 5월(14.7%) 이후 1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고 아이스

크림은 15.2% 오르면서 2009년 4월(2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도 1년 전보다 10.6% 올랐다. 올해 2월(1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연유·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 가격도 87원 오른 영향이다. 분유값 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지난 달 다시 10%대로 진입했다.

우유·분유값 상승은 이를 원재료로 하는 빵·과자류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외식업체 등은 빵·과자에 사용되는 유제품 비중이 작고 수입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

문에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곡물·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식품 물가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유값 상승은 향후 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아이스크림값은 지난 달 15.2% 오르면서 전달(14.0%)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09년 4월(2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올해 들어 계속된 10% 이상 높은 상승세에 더해 우유값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빵값은 지난해 11.8%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0월 치즈값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미 23.1%나 오른 상황이다.

10월까지 초콜릿·파이·두유값 상승률도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5.6%, 10.3%, 10.9%에 달한다.

이처럼 우유 관련 제품의 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지난달 우유 원유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에 흰우유와 발효유 등의 유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우유 제품 '나100%우유'(1ℓ)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가량 올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900원대로 상승했다.

또 매일유업이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리고 발효유·치즈 제품은 6~9% 상향 조정했으며 남양유업은 흰우유 제품 '맛있는우유GT'(900ml) 출고가를 4.6% 인상했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빙과업체들이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올렸으며 아이스크림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협의회는 "빙과업체들이 원재료 함량이나 가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 물가 관리 TF 가동 우유 등 7개 품목 집중 관리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유와 커피 등 주요 식품의 물가를 품목별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해 TF 내에서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밀착 관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짜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에 한복 보내기 후원금을 전달한 뒤 김인수(맨 오른쪽) 광주은행 부행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회 한복 보내기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4주년을 맞아 전남여지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역사관에서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을 위한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1905년 대한제국을 떠나 멕시코·쿠바에 정착했던 한인동포 1세대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고국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 한복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한복 보내기 운동은 광주은행을 포함한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한복 300여벌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지·후원한 기록이 확인된 멕시코 메리다 한인후손회와 쿠바 호세마르티 한인후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인수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 재정과 독립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한인 후손들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해 공동체 정신을 계승해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주요기업 재택근무 줄었다... 10곳 중 6곳 시행 중

경총, 매출 50대 기업 설문... '축소·중단 과정서 직원 반대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대기업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10곳 가운데 6곳 정도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상위 50대 기업(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31곳 중 58.1%가 '현재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재택근무 시행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현재 '재택근무 미시행'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1.9%였다.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38.7%, '지금

까지 시행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3.2%였다.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라고 해도 과거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그 규모는 감소했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 가운데 61.9%는 '필요 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으며, 재택근로자를 일정 비율 정해놓고 부서·팀 단위로 운영하는 '교대 순환형'과 '부서별 자율 운영' 방식을 택했다는 기업은 각각 19.0%였다.

재택근무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기업도 절반가량에 달했다. '반대가 거의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

았지만 '일정 부분 반대가 있었지만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한 기업은 36.7%,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 기업은 10.0%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3.3%였다.

이밖에 재택근무 확대 전망에 대해 응답 기업의 64.5%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 (25.8%), '향후에도 지속 활용·확산' (9.7%) 등의 순이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크게 확산했던 재택근무가 현재까지 축소됐다"며 "재택근무가 대면 근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업종, 직무, 근로자 여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북구, 증기 해외 진출 성공 신화 해외시장개척단 통해 동남아 2개국 26만달러 계약 체결

광주시 북구가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동남아시아 2개국과 5건 26만 달러(약 3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14건 9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약정하고, 북구 내 중소기업과 베트남 업체 간 116건 1607

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해 세계한인무역협회 하노이 지회, 라오스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북구와 KOTRA 광주전남 지원단,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척단에는 미용·뷰티·식료품 등 생활 소비재 관련 지역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적극적인 사전 유망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를 토대로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화장품, 콘택트렌즈, 가공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이 주효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성과가 경기 침체 반동의 불씨가 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는 물론, 수출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9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8 19 26 33 45	3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83,289,844	16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0,263,170	84
3	5개 숫자일치	1,269,044	3,327
4	4개 숫자일치	50,000	160,096
5	3개 숫자일치	5,000	2,540,721



와인 창고 대방출 광주신세계는 오는 9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와인하우스 매장 및 행사장에서 '2023 와인 창고방출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와인부터 가성비 특가 와인까지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직원들이 와인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고객 사랑 보답" 기아 광주전남본부 노사합동 차량 기증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여준우) 지난 3일 노사 합동으로 '사랑나누기 차량 증정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증정식은 지역사회 고객들이 보내준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아 광주전남본부 노사는 광주시 광산구 송산실버마을에 '더 뉴 기아 레이' 1대를 전달했다.

'더 뉴 기아 레이'는 경차임에도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운전석을 제외하고 '폴 플랫'이 가능해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복지단체 직원들의 업무수행과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아는 기대했다.

기아 관계자는 "복지단체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기아의 인기 차량인 레이를 전달했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소외아동



여준우(맨 왼쪽)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김대성(맨 오른쪽) 기아 노동조합 판매지원팀장 등 광주전남본부장이 김영미 송산실버마을 원장에게 '더 뉴 기아 레이'를 전달하고 있다. <기아 제공>

초청 프로야구 경기관람 행사,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목포아동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EV9을 타고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